

# 초겨울, 한옥 아랫목의 온기 느껴보세요

## 관광공사, 한옥문화 체험 5곳 추천

충남 서산 '계암고택' 서 전통음식 만들기  
지리산 물줄기 흐르는 전남 구례 쌍산재  
경북 청송 한옥민예촌 대강택서 1박 2일  
강원 영월 조건당·우구정가옥 시골 정취  
경기도 연천 연근당, 조선왕가 체험하기

코끝에 닿는 공기가 꽤 차갑게 느껴지는 초겨울.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맘때면 여행을 떠나 마음 훈훈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어진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의 온기를 만끽할 수 있는 한옥체험은 그런 점에서 12월 초겨울이 제격이다. 요즘 전국 각지에는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저마다 다른 문화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들이 즐비하다. 한국관광공사는 12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 ●장작불 구들장의 매력- 충남 서산 계암고택

계암고택은 300년 역사의 저택이다. 장작 불을 지핀 구들장 아랫목의 온기가 매력적이고, 날찍한 행랑채와 사랑채 앞마당은 아이들이 놀기 좋다. 전통음식 만들기 같은 체험행사도 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용현리 마에여래삼존상, 전통건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개심사도 볼 수 있다. 해미읍성도 가깝다. 문의 041)688-1182

### ●지리산에 기대 섬진강을 바라보면- 전남 구례 쌍산재

쌍산재는 1만6500m<sup>2</sup>가 넘는 집터에 살림채, 별채, 서당채, 대숲, 잔디밭까지 갖춘 한옥으로 모든 건물을 숙소로 운영한다. 주인의 고조부가 지은 서당 쌍산재가 그대로 있고, 지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이는 당풀샘이 있다. 지리산 온천랜드도 가깝다. 문의 010-3635-7115, 061)782-5179

### ●TV없는 한옥서 힐링- 경북 청송 한옥민예촌

청송 한옥민예촌에는 대강택, 영감택, 정승택, 주막 등 생김새와 구조가 다른

집이 여러 채다. 고가구로 장식한 방에는 여유롭고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도록 TV가 없다. 인근 덕천마을의 송소고택, 읍내의 운봉관과 천경루 등의 한옥이 있다. 약수로 끓인 닭백숙이 별미인 달기약수, 풍광이 멋진 주산지, 작가 김주영의 '객주문학관', 솔기운천 등이 주변 명소다. 문의 054)870-6240

### ●100년 역사 자랑- 강원도 영월 조건당과 우구정가옥

주 천면 조건당(김종길 가옥)은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안채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사랑채는 깔끔하게 새로 단장했다. 반면 남면 우구정가옥(사진)은 안채, 건넌방, 사랑방으로 단출하지만 옛 시골집의 정취를 그대로 갖고 있다. 방은 장작으로 구들에 불을 댄다. 문의 1577-0545

### ●왕가의 품도 느껴보자- 경기도 연천 조선왕가 연근당

연천의 조선왕가 본채 연근당은 원래 서울 명문대에 있었으나 성균관대학교 기숙사 건축으로 이곳으로 옮겨왔다. 집을 옮기려 해체하던 중 고종 황제의 손자 이근의 집이라는 상량문이 발견됐다. 일반 민가에서 보기 힘든 끈계 뿔은 기둥과 서까래가 이채롭다. 오랜 세월에도 금 가고 타진 곳이 없는 이유는 공돌이를 지을 때 쓰는 금강송을 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연천평야를 내려보는 누마루를 가진 사랑정과 함께 '모'자 마당을 완성하는 연근당 뒤편에는 별채 자은정이 있다. 모두 황토로 벽과 바닥을 채워 힐링을 위한 장소로 적격이다. 인근에 고려왕의 위패를 모신 연천송의전지, 임진강을 바라보는 당포성, 동이리 주상절리, 전곡선사박물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문의 조선왕가 031)834-8383, 연천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31)839-2061

김재범 전문기자 aldfield@donga.com @kobaukid

단아하면서 고즈넉한 분위기의 충남 서산 계암고택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여행객들. 계암고택은 마당을 품에 안은 우리 한옥 특유의 '모' 자형으로 안채가 이루어져(작은 사진) 더욱 따스한 정감을 느끼게 한다.



## 관광공사가 인증하는 '한옥스테이' 따로 있다

고객서비스·안전성 등 우수업체 선정  
현재 239개 업소 '한옥스테이'로 인증



남다른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남 서산의 계암고택, 강원 영월의 조건당, 경기 연천의 조선왕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세 집

은 모두 관광공사로부터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은 숙박시설이다.

한옥스테이는 한옥 체험업 등록 가구가 늘면서 서비스 품질과 숙박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인증 제도다. 한옥체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친절도, 고객 서비스, 시설 편의성, 안전성, 청결도, 전통 체험프로그램 등을 심사해 우

수 업체를 선정해 인증한다. 현재 한옥스테이로 인증 받은 업체는 239개. 이중 2014년에만 100개 업소가 새로 인증을 받는 등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한옥스테이와 함께 전통한옥 중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한옥을 '명품고택'으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옥 투숙과 함께 전통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문화재 또는 70년 이상된 한옥 중

중부가 운영하고 있는 원형 그대로의 한옥을 엄선하고 있다.

현재 안동 하회마을의 북촌택, 안동 학봉구택, 경북 의성의 소우당, 경주 총의당, 강릉 선교장 등이 '명품고택'으로 선정되어 있다.

관광공사는 공식 홈페이지(www.hanokstay.or.kr)를 통해 한옥스테이와 명품고택을 소개하고 있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 '레저세' 개정 재추진...폐광지역 4개 시·군 부글부글

국회 행안위, 카지노 매출 10% 부과안 심의  
폐광지역발전기금에 영향 주민들 강력 항의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가 다시 가시화되면서 관련업계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카지노에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체들은

레저세와 자동부과하는 교육세 4%, 농어촌 특별세 2%까지 매출의 16%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올 여름 추진되다가 강원도 폐광지역 등 지역사회의 반대로 유보됐다. 법안 상정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사회 단체는 레저세 부과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상경투쟁 등의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

폐광지역이 레저세에 민감한 것은 강원랜드가 이곳에 지원하는 '폐광지역발전기금'(이

해 폐광기금)이 대폭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폐광기금은 2013년 매출 기준 1144억원. 레저세 법안이 통과되면 724억원으로 줄어든다.

카지노업계에 레저세 부과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협회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매년 3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여하는 전략관광산업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한 관광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카지노업협회회는 또한 "지금도 영업이익의 발생과 상관없이 매출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고, 개별

소비세 4%와 입장세도 내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비슷한 소비세를 레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삼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원랜드는 지난해 국제 2100억원, 지방세 187억원 등 총 2287억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2062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2013년 매출 1조 2773억원의 34%이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저세 부과가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세수 재원 확보가 절실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레저세 부과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경우 카지노와 관광시설에서 레저세와 관광세로 연 12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 식품업계, 알래스카 원재료 경쟁

연어캔 시장 활성화로 명태·어묵까지 경쟁



'원재료가 경쟁력! 알래스카 어장을 잡아라.'

수산물용 핵심 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에 알래스카산 원재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알래스카산 수산물이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정해역의 신선한 자연산 생선이라는 점이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공포로 인해 연근해 수산물을 피하고 먼 바다 수산물을 찾는 소비심리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 원재료 경쟁의 시발점이다.

알래스카산 수산물 경쟁은 연어캔 시장에서 먼저 시작됐다.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에 이어 그동안 칠레산 코호 연어를 사용하던 동원F&B도 향후 알래스카 연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알래스카 연어 어획기업 실버베이 시푸드(Silver Bay Seafoods)와 투자 계약을 맺고 연어캔 시장에 주도권 잡겠다고 밝혔다.

연어에서 시작된 알래스카산 원재료 확보 경쟁은 최근 풀무원이 100% 알래스카 자연산 명태를 사용한 프리미엄 어묵 제품을 출시하면서 확산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아산 저가 생선으로 만든 제품이 주를 이루던 기존 어묵시장에 알래스카산 100% 자연산 명태, 그 중에서도 A 등급 이상의 연육만을 사용한 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특히 알래스카에서 어획한 명태는 얼리지 않은 채 바닷물에 담가 육까지 수송한 후 한 살코기만 발라낸 연육으로 만들어 신선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의 이같은 공세에 어묵업계도 바짝 긴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남아산 실리프리를 주로 사용해온 경쟁사들은 일부 제품에 알래스카 명태를 사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w

## 조이스티 '조이플'로 해외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모바일게임 8종과 함께 전략 발표



조이스티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조이스티는 27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신작 모바일게임 8종과 함께 글로벌 모바일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글로벌 자체 플랫폼 '조이플(JOYPL)'이다. 이 플랫폼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기반 아이디어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돼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모바일 게임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언어지원부터 유저 대응, 각종 이벤트와 업데이트까지 조이스티가 직접 운영해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이스티는 이 플랫폼과 '건설배틀'을 통해 확보한 2500만 글로벌 유저풀이 더해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이스티는 27일 출시한 자체 개발 캐주얼 비행 슈팅 게임 '주주히어로'를 시작으로 캐주얼 보드게임 '주사위의 신'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하프블러드' 등 내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 ■ 신간

### 홍보쟁이 17명의 현장 뒷이야기



●홍보의 신(神)  
(신동광, 전정아 외 15명 | 초록물고기)

'홍보쟁이' 17명이 의기투합해 내놓은 생생한 홍보의 현장 이야기. 제품홍보를 위해 하루에 홍초 2리터를 마신 사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코엑스의 '금붕어 경호원'이 세계적인 화제가 된 뒷이야기, 막걸리에서 나왔다는 율령이를 시식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에피소드 등 홍보인의 애환(?)어린 사연들이 한 가득 펼쳐진다.

이제는 아련해진 추억 속의 가판에 얹힌 이야기부터 최신 디지털 홍보시대까지 짧다만 짧고 길다만 긴 15년의 홍보 변천사를 경험할 수 있다.

홍보인들의 영원한 '동지이자 적'인 기자들과의 에피소드도 빠질 수 없다. 여자 홍보인이라고 무시하는 남자 기자들을 새벽 포장마차까지 끌고 가 술로 항복을 받아내고 아침 7시30분에 약삭같이 출근한 여전사 3인방의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신(神)'은 '고단함'이다. 이 책은 지금은 '홍보의 신(神)'이지만 언젠가 '홍보의 신(神)'으로 등극할 날을 꿈꾸는 이들의 출사표다. 홍보를 단순히 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막고 CEO 동정이나 알리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세상물정 모르는 CEO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